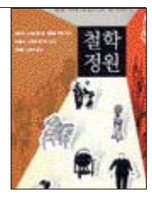
# 북스

Books

## 철학 냄새 안나는 고전으로 철학하기

### 철학 정원 김용석 지음



고전(古典)의 사전적 정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고전은 필독서 목록과 궤를 같이 하고, 종종 삶의 정수(精髓)를 일깨워 준다. 고전을 철학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부산의 영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용석씨가 대중철학서를 냈다. '김용석의 고전으로 철학하기'라는 부제를 단 '철학 정원'은 철학 대중화에 힘써왔던 저자의 학문적 지향점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자는 '인문학의 책으로 본 과학'(공저·한겨레출판), '깊이와 넓이 4막16장'(휴머니스트) 등 관련 서적을 이미 냈다.

저자는 '사유를 즐기는 젊은 벗들에게'라는 제목의 머리말에서 "이 책은 고전의 소개도 아니고, 해설도 아니다"고 말한다. 자유로운 사유를 위해 "고전이 제공하는 생각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책을 쓴 이유라고 밝힌다. 그래서인지 저자가 내세운 고전 목록이 조금은 독특하다. 동화에서 영화, 민중문학 그리고 과학 고전까지.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새끼'는 열림과 닫힘에 대해 생각케 한다. 오리들의 '닫힌 사회'에서 배척됐던 미운 오리를 백조들이 받아주지만, 이는 결국 '백조들의 닫힌 사회' 일원이 되는 것일 뿐이다. 오리든, 백조든, 자신들과 같은 조건을 가진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다. 인간은 어떠한가.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는 작품 속 인조인간의 이름을 짓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이다. 저자는 이 괴물의 '이름없음'이 소설의 비극적 상황을 불렀다고 말한다. 김춘수의 유명한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던 것처럼, 창조자에게조차 부름당하지 못한 '괴물'은 그 무엇도 될 수 없었다.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도 강조된다. 저자는 어린 왕자와 여우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장면을 예로 든다. 여기서 저자가 주목한 것은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의 역할이다. 여우는 "아무 말도 하지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라며 육성언어의 미디어조차 거부하지만, 현실에서 인간들이 관계를 맺는 데는 휴대전화 등 수많은 매개들이 등장한다. 사람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길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저자는 묻는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은 마키아벨리즘의 대표 명제지만 정작 그의 책 '군주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무능한 자의 변명"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를 부정한다. '군주론'을 '능력의 인간학'으로 다시 읽어볼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또 과학 고전인 갈릴레오의 '대화'를 통해 그가 주장했던 지동설은 과연 신을 부정한 것인지, 찰리 채플린의 영화 '서커스'에서는 소외 없는 자아가 있을 수 있는 건지 등의 질문을 던진다. 책 속에는 이 밖에 동화, 문학, 영화, 철학, 정치·사회·문화 사상, 과학 등 6개 분야의 고전 55권에서 뽑아낸 생각거리들이 넘쳐난다. 〈한겨레출판·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생텍쥐페리의 삽화. 여우는 왕자에게 "제발 나를 좀 길들여줘"라고 말한다. 저자는 "그러나 누가 누구를 길들이게 될까"라는 물음을 던진다.

## 책벌레 22명 통해 본 조선시대 출판문화

###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강명관 지음

세계 최초로 꼽히는 고려의 금속활자는 우리문화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키워드다.

금속활자를 통해 우리문화가 찬란히 꽃피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고려시대에 금속활자가 인쇄문화에 기여한 사례는 드물다. 그만큼 금속활자는 대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조선 태종과 세종대에 문학, 역사, 철학서적 등 수많은 종류의 책이 출간된 게 사실. 하지만 출간의 본질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배층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것이었지 민중들의 지식축적과는 괴리가 있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활자로 인쇄한 책자들도 소수 지배계층에게 필요한 언해본 서적이었을 뿐 만백성에게 보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부산대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가 펴낸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는 조선시대 출판과 서적에 관련된 인사 22명을 통해 출판문화와 지식의 지형도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당시 지식인들의 저술이 독자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은 중국 서적들을 읽은 뒤 주해를 단 것이고 이익의 '성호사설'도 중국 책을 읽은 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책이라는 것이다.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불리는 박지원의 개성넘치는 산문과 사유도 중국 공안파(公安派·작가의 개성을 강조하는 문학)의 비평이론과 김성탄의 소설비평에 기원을 두고 있다.

박지원류의 문체와 사고를 탄압했던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은 책과의 전쟁으로 기록된다. 정조는 북경에서 수입된 천주학, 서양기술학 등 불순한 사유의 유통을 금지하는 대신 주자대전집 출간을 기획하는 등 국가기강 유지에 대한 책을 펴냈다.

중국에서 방대한 책이 수입된 18세기에는 '독서를 위한 독서'를 추구했던 선비 유만주와 같은 독서광도 탄생했다.

유만주는 자신이 남긴 독서일기인 '흠영(欽英)'이란 책에서 "을유년(1765년·11세)부터 1780년까지 읽은 책이 아직 1천권이 안되니 박식하지 못한 것이 마땅하다"고 탄식했다.

강명관 교수는 "조선의 책 생산과 유통, 그리고 독서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와 관련되지만 이 문제는 학계에서 정식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 책이 근본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지만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푸른역사·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중국 대표작가 모옌 소설 5권 번역 출간

노벨 문학상이 발표될 무렵이면 중국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현대 중국문학의 대표작가 모옌의 소설 3종 5권이 동시에 번역·출간됐다.

'홍까오량 가족'은 장이모우 감독의 영화 '붉은 수수밭'의 원작소설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홍꺄오량 가족'의 첫 번째 장에 해당하는 '붉은 수수'가 문고판 형식으로 나온 적은 있지만, 다섯 편의 중편이 한데 묶여서 완역된 것은 처음이다.〈문학과지성사·1만8천원〉

'티엔탕 마을 마늘종 노래'(전 2권)는 문화대혁명의 후폭풍이 몰아친 1980년 작은 농촌 티엔탕에서 벌어진 마늘종 봉기 사건을 통해 중국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풀 먹는 가족'(전 2권)은 저자가 어린 시절 들었던 민담과 전설 등을 토대로 쓴 6가지 판타지 소설이 실려 있다. 〈랜덤하우스·각 권 9천원〉

##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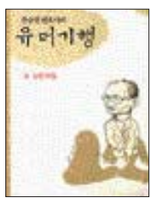
▲참 듣기 좋은 소리=클래식 마니아인 변호사 최영도씨의 음악 감상기. 단순한 클래식 음악 해설서가 아닌 것은 저자가 클래식에 관심을 가진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클래식 문화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해왔는가에 대한 현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학고재·1만2천원〉

▲발자국=저널리스트 고종석이 역사의 발자국을 날짜별로 기록했다. 전체가 366꼭지인 것은 윤달을 계산에 넣어 2월을 29일까지 셈했기 때문. 저자는 작가, 철학자, 종교인, 예술가, 정치가, 발명가, 운동선수 등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좇아 역사의 행보를 답사한다. 〈마음산책·1만4천원〉

▲신식 농사꾼 15인의 돈 버는 이야기=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취재팀이 완도에서 강원도까지 훑어 찾아낸 '돈 잘 버는 농사꾼' 이야기 15편이 실려 있다. 농림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찾아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미FTA 시대 농업의 대안을 엿본다. 〈이코노미스트·1만원〉

▲문화지능=저자인 크리스토퍼 얼리 등 경영학자 세 명은 인간관계나 조직 내 업무관계 등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지능(Cultural Quotient)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문화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로 전략적 사고, 동기적 문화지능, 행위적 문화지능을 제시한다.〈영림카디널·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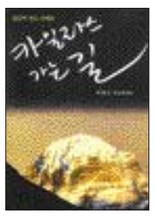
▲중국, 도적 황제의 역사=일본인 중국문학 전문가 타카시마 토시오가 도적의 개념으로 중국의 역사를 들췄다. 집단적 힘을 가진 도적이 마을이나 도시를 습격, 백성들을 괴롭히다 규모를 키워 도시를 빼앗고 천하를 장악하면 바로 황제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 역사에 빗대어 일깨운다. 〈역사넷·1만4천원〉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기행=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가 쓴 두 번째 유머에세이. 독서잡지 '책과 인생'에 '산민객담'이라는 제목으로 5년간 연재했던 글을 모았다. 저자는 엄숙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규격화된 언어와 사고에서 잠깐 비껴날 것을 조언한다.〈범우사·1만원〉

▲명화 경제토크=사비나 미술관장인 이명옥 국민대 미술학부 교수와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명화(名畵) 속에서 경제학의 원리를 읽어낸다. 33개 명화에서 저자들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의 흔적을 발견하고, 초상화에 숨은 경제논리를 말한다. 〈시공아트·1만4천원〉

▲마야의 예언, 시간의 종말=영국의 피라미드 관련 전문저술가 에이드리언 길버트가 마야의 다양한 유적과 문헌자료를 통해 마야인들의 예언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마야 연구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대 마야인들이 어떻게 천문학 지식을 얻었는지 등을 추적한다. 〈말·글빛냄·1만6천500원〉



▲카일라스 가는 길=소설가 박범신의 명상에세이. 지난해 7월20일부터 한 달간 티벳 여행을 다녀온 뒤 느낌을 적었다. 이번 티벳 여행에서 저자가 특히 눈여겨 본 것은 카일라스 일대의 수도자들. 저자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내면을 살피도록 인도한다. 〈문이당·1만5천원〉